



[가주법률개정안 58]에 찬성 투표를 합시다 - LEARN Initiative – 배움 발의안

2016년 11월 8일 캘리포니아 총선거

[가주법률개정안 58]이 통과되면 가주학생들이 공립 교육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영어를 습득하는데 도움을 받게되며 학생들에게는 제2언어를 쉽게 배울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가주법률개정안 58]은 가주학생들이 빠르게 영어를 습득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현재 20년전에 제정된 낡은 법규에 의하여 가주내 각 교육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어교육 방법이 제한받고 있으며, 학생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영어를 습득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가주법률개정안 58]은 가주학생들이 제2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낡은 법규는 영어원어 학생들이 다중언어몰입프로그램 (language immersion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주교육국에 의하면 10,323개 가주공립학교 중에 312개 학교만이 다중언어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주법률개정안 58]은 각 교육구에서 효율적인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기존의 법적인 장애를 제거하여 영어원어 학생들이 제2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가주법률개정안 58]은 가주학생들이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줍니다.

영어에 능숙하며 제2언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은 국제 비즈니스계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가주학생들이 제2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창의력 향상, 고임금직장 취업기회, 이중언어 커뮤니티관련 취업기회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중언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일반학생보다 높은 성취도와 학업성적을 내고 있다는 결과가 다양한 교육관련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주법률개정안 58]은 우리 학교의 지역자치권을 복원시키며 학부모의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가주법률개정안 58]의 통과로 기존의 지방교육구에 대한 포괄적인 주차원의 법적 규제를 완화시켜고 지역적 특성에 맞춘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언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가주법률개정안 58]은 지방교육구, 교육자, 학부모, 그리고 기업고용자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구: [가주교육구이사협회]
- 교육자: [가주언어교육자가주협회], [가주교육자협회], [가주교육자노조]
- 학교행정자: [가주학교행정자협회]
- 학부모: [가주학부모회(PTA)협회]
- 고용자: [산호제/실리콘벨리상공회의소], [로스앤젤레스상공회의소]

[가주법률개정안 58]에 찬성 투표하여 우리 학생들의 배움에 도움을 줍시다.

이번 캠페인 참여하시려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세요. www.SupportProposition58.com